



질병세미나 성료, 농장내 차단방역 최우선

가중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농장의 경영이익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올해 또
그한 이러한 질병들로 인해 출하량이 줄어들어 지난 3월에는 생산량 증가로 가격폭락이 예
상되었던 육계의 경우 예상과 달리 한때 산지가격이 폭등하는 기현상도 발생하는 듯 질병으로
인한 변수가 올해도 여김없이 작용하고 있다. 그만큼 질병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반증이기
도 하다.

질병발생으로 농장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본회에서는 양계농가 경쟁력 향상 방안 일환으로 전
국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9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질병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대강당과 축산연구소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계농가 및 양계관
련단체 35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농가의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질병을 차단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질병세미나에서는 5개 주제로 나뉘어져 정부당국의 정책방
향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현장질병 문제점 분석 및 대안들을 제시하는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1. 정부의 양계질병 방역대책

▶ 발표 : 양홍구 서기관(농림부 가축방역과)

국가 차원에서의 방역상황과 정책사항을 전달하며 과거 HPAI 발생지역에 대한 살처분 사례 교육 및 농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내 방역활동 내역으로 지속적인 농장소독 및 닭·오리·철새에 대한 예찰강화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 유입 방지를 위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농가차원에서의 차단방역을 당부하였다. 이외에 뉴캐슬병과 기금티푸스에 대한 정부정책사항을 교육하였다.

양홍구 서기관은 99% 방역을 잘하더라도 1%가 풀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강조하고 방역활동에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2. 농장 예찰의 중요성과 민간방역

▶ 발표 : 지경섭 부장(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부에서는 국가방역차원에서 방역계획 수립과 국경검역, 전염병검진 및 방역기술개발에 주력하는 반면 민간방역기관에서는 농장채혈, 예방접종, 소독, 방역교육, 홍보에 주력하여 국가방역과 민간방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본부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농장예찰을 통해 사전에 질병발생을 최소화하며 신속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장예찰의 중요성 강조와 농장 협조의 당위성을 제시하며 방역본부의 역할과 민간방역활동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정부에서 실시하는 채혈활동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3.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동향 분석

▶ 발표 : 권용국 연구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외국과 국내에 발생했던 사례를 통한 경각심 제고와 국내 빠른 질병퇴치 사례 및 전파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정지역 유지와 방역실시 상황정보를 농가에 제공함과 동시에 각종 질병검사 절차와 인수공통질병 발생시 대처사례 및 방법들을 제시하였으며, 최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성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피해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됨에 따라 정부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백신정



책을 실시할 예정을 전달하였다.

4. 최근 닭 질병 발생 추이 및 예방대책

▶발표 : 손영호 소장(반석가금진료연구소)

각종 소모성 질병들이 다발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우선 방어는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에서부터 시작됨을 강조하였다. 최근에 농장에 발생하고 있는 ND, MD, LPAI, IB, APV, FT 등 각종 소모성 질병에 대한 증상과 대처방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농장내 분무소독시 건조한 상태에서 소독을 하면 빠른 시간내에 증발하여 소독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습도를 고려해 소독을 할 필요성 제시했다.



5. 외국의 뉴모바이러스 발생동향 분석

▶발표 : 이동우 박사(메리알코리아)

최근 국내에 대두되고 있는 뉴모바이러스는 호흡기 질병으로 짧은 기간 동안 약간의 신란을 저하나 탈색란 발생 등이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뉴모바이러스에 감염시 면역억제 현상이 나타나면서 타 질병으로 인한 2차감염시 또는 복합감염시 그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외국의 발생지역별 바이러스 타입 구별, 백신접종 사례, 대응책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육용종계에서 가금티푸스 생독백신접종에 따른 육계에서의 가금티푸스가 발생함에 따라 CC농장들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이란 질문에 권용국 연구관이 “가금티푸스 생독백신에 의한 후대 병아리에서 가금티푸스 발생은 가능성이 적으며 만약 그런 의심 사례가 있다면 정밀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메리알코리아(주), 양지부화장, (주)코미팜, 고려비엔피, (주)삼화육종, 운석바이오, 한국양계조합, 다스립컨설팅, 풍한농장에서 협찬을 아끼지 않았다. **양계**

